통도사, 백중 맞아 '목련존자' 공연

8월8일 기장 가마골 소극장에서
통도사, 인도부처님 봉불식 잇는
한국 · 인도 국제 문화교류 일환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문)가 다가오는 백중을 앞두고 백중의 의미를 되새기는 연극을 선보였다. 통도사는 8월 8일 기장읍 가마골소극장에서 '한국 · 인도 국제문화교류 통도사 특별공연- 목련존자' 를 개최했다.

지난 5월 16일 통도사에서 진행된 인도부처님 봉불식 이후 한 · 인 문화교류의 일환으로 마련된 연극 '목련존자' 는 우란분절(백중)의 유래가 된 목련존자와 그의 어머니의 이야기로, 부처님 10대제자인 목련존자가 생전의 죄업으로 지옥에 떨어진 자신의 어머니를 구제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박현철 작가의 원작을 김소희가 연출한 연극 목련존자는 현대적 각색과 해학적 요소를 더해 관객들이 우란분절의 의미를 쉽고 진하게 느낄 수 있다.


영축총림 통도사는 8월 8일 가마골소극장에서 '한국 · 인도 국제문화교류 통도사 특별공연-목련존자' 를 선보였다.

주식회사 월산프로젝트 극단 씨몬이 제작한 이번 연극에는 박정우 · 김미숙 · 이영아 등 많은 연극배우들이 출연해 열연했다. 특히 목련존자의 어머니 청제 부인 역을 맡은 김미숙 배우는 진지하고 때론 익살스러운 연기로 공연 내내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관객들은 "일회로 끝내기엔 아쉽다", "시간이 금방 지나갔다", "감동이었다", "우리만 보기 아쉽다"며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이번 특별공연은 기획 당시에 인도 정부와 협업해 특별 합동 공연으로 진행하기로 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도 정부는 참여하지 못했다. 공연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한편 통도사는 특별공연과 함께 한 · 인 국제문화교류를 기념하는 특별전시를 개최한다. 8월 7일부터 22일까지 명월료에서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 展을 진행한다. 경상남도 미술협회와 경남미술창작소가 참여하는 전시에는 사진, 공예품, 회화, 불화 등 50여 점이 전시된다.

통도사 사회국장 성오 스님은 "인도 정부와 함께 성대하고 다채로운 문화 공연을 보여주고자 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부분이 취소됐고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며 "하지만 이번 연극은 경전에 나온 목련존자의 가르침을 수준 높은 연출로 보여줄 수 있어 앞으로가 더욱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인도와의 국제문화교류가 발전해 그 결실로 불교문화가 꽃피는 계기가 되고 이번 공연과 전시가 그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연을 관람한 이재영 더불어민주당 양산시갑 지역위원회 위원장은 "인도 부처님을 통도사에 모시기 위해 작게나마 심부름을 하는 심정으로 돕고 노력했다"며 "세계문화유산 통도사가 있는 양산이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거듭나기를 서원하며 오늘 심은 작은 씨앗이 풍성한 결실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도사 총무국장 종현 스님은 "한국과 인도의 국제문화교류가 지역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후원으로 마무리 되어 의미가 있다"며 "예술인들의 아름다운 작품이 통도사를 찾는 시민들에게 힐링을 선사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사부대중 1만일 기도원력이 곧 불사"

만일결사 2500일 회향
법륜사 주지 현암 스님



"만일결사는 30년간 이어지는 기도입니다. 매일매일 기도와 나눔을 실천하는 불자 한사람 한사람이 자신을 변화시키고 주변을 바꾸고 나아가 사회를 바꾸는 씨앗이 되는 과정이지요. 결사에 동참하는 사부대중의 원력, 그 자체가 곧 이 세상을 불국토로 만드는 불사인 셈입니다."

용인 법륜사가 2014년 8월 17일 입재한 '붓다로 살자 운동 실천을 위한 만일결사' 가 8월 8일 2500일 회향을 맞았다. 햇수로만 7년, 1만일 중 4분기의 첫 번째 목표를 달성한 셈이다. 코로나 19 팬데믹에도 흔들림 없이 결사를 이끌고 있는 주지 현암 스님은 "만일결사의 핵심은 '기도' "라며 "기도에 기반을 둔 불자들의 실천행은 그 자체로 불사의 과정"이라고 단언했다.

법륜사 만일결사의 특징은 개개인의 기도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양한 결사 프로그램을 통해 5대 결사의 취지를 되새기고 불자들의 실천을 돕는다.

매일 1000원을 '좋은 이웃되기 기금' 에 보시해 나눔결사의 실천도 이끈다. 보시금은 장학금을 비롯해 소외 이웃을 위한 지원기금으로 사용된다. 매년 동지때 팥죽나눔을 비롯한 봉사에 나서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평화결사의 일환으로 매년 6월 6.25 전쟁 당시 희생당한 고혼을 위한 기도법회를 봉행하며, 문화결사인 산사음악회, 사찰음식 대중공양과 바자회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찰의 모범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네이버 밴드 등 SNS를 활용한 동참도 더욱 확대됐다. 코로나라는 이례적인 상황이 되레 결사대중들의 원력을 굳건히 하는 계기로 작용한 셈이다.

스님은 "부처님 가피로 기대 이상의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감동적이다"며 "어려운 시기 결사대중들의 원력이 더 폭넓게 모이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만일결사가 곧 세상을 맑히는 불사라는 믿음을 갖게 된다. 끝까지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법륜사 만일결사 회향일은 2042년 1월 1일이며, 누구나 동참할 수 있다.
031)332-5703 송지희 기자

천진불어린이합창단聯 제2대 회장에 황산

8월 6일 이 · 취임식 봉행, "한국불교 미래 밝도록 노력"


천진불어린이합창단연합회는 8월 6일 부산 영도 무진선원에서 제2대 회장 이 · 취임 법회를 봉행했다. 왼쪽에서 두 번째 제2대 회장 황산 스님.

어린이 문화포교에 앞장서고 있는 천진불어린이합창단연합회의 제2대 회장에 울산 황룡사 주지 황산 스님이 임명됐다.

천진불어린이합창단연합회(이하 천진불합창단)는 8월 6일 부산 영도 무진선원에서 제2대 회장 이 · 취임 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총재 지현 스님, 초대회장 성원 스님, 2대 회장 황산 스님, 부회장 목종 스님, 지도법사 현수 스님 및 소속 회원사찰 스님들이 참석했다.

2대 회장 황산 스님은 취임사에서 "총재스님을 비롯한 여러 스님들과 함께 한국불교의 미래를 밝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초대회장 성원 스님은 이임사에서 "음악을 통해 어린이가 불법을 만나도록 소명을 갖고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어린이 포교를 위해 신임 회장스님과 소속 회원 스님들을 돕겠다"고 전했다. 성원 스님은 2016년 취임 후 천진불합창단을 이끌어 왔다. 이 공로를 인정받아 이날 공로패를 수여받았다.

총재 지현 스님은 "천진불 포교를 원력으로 하고 신심을 바쳐서 노력하면 어린이 포교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경남파라미타 · 창원한마음병원 업무협약

8월 5일 한마음병원서 체결…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경남파라미타와 창원한마음병원은 8월 5일 창원한마음병원 4층 대회의실에서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경남파라미타청소년협회(이하 경남파라미타)와 한양대 창원한마음병원(이하 한마음병원)이 업무협약을 맺고 청소년들의 문화지킴이 활동을 위한 보건 후원 활동을 펼친다.

경남파라미타(회장 김재호)와 창원한마음병원(이사장 하충식)은 8월 5일 창원한마음병원 4층 대회의실에서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경남파라미타 문화재지킴이 학생 및 학부모, 지도교사 등의 보건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협력하고 학교를 비롯해 지역사회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한다.

업무 협약식에는 경남파라미타청소년협회 김재호 회장, 최두찬 초대회장, 양수만 前 회장, 탁미순 대외협력이사, 신동원 사무처장, 성규종 감사, 도인선 양산지회장, 전미선 사무장, 문화재지킴이 대표 학생들과 한양대학교 창원한마음병원 하충식 이사장, 최경화 의료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편, 경남파라미타는 경남지역 초 · 중 · 고등학교 학생 1028명과 지도교사 40여 명이 문화재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사)나누우리, 불우환아 치료 후원금 전달

태고종 구호기관 사단법인 나누우리(이사장 도산)가 7월 30일 밀양 법성사에서 불우환아 치료후원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사)나누우리는 매년 국내 구호활동을 위해 분기마다 만 15세 이하 환자에게 치료비 100만 원을 전달하고 있다.



태고종 구호기관 사단법인 나누우리가 7월 30일 밀양 법성사에서 불우환아 치료후원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올해 2분기 후원금은 총 200만 원으로 밀양시에서 추천한 김모 아기(만1세)와 김모 어린이(만15세)에게 각 100만 원씩 전달됐다.

만1세인 김모 아기는 출산과정에서 응급처치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아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다. 산모 또한 출산쇼크 뇌경색으로 수술치료를 하는 등 힘든 생활고를 겪고 있다.

만15세의 김모 어린이는 이혼한 친모의 정서적 학대를 겪었으며 치염 및 중이염을 앓고 있다.

한편, (사)나누우리는 캄보디아 스님들을 위한 긴급지원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사)나누우리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탁발 금지령이 내려져 스님들과 어린 동자스님들이 배고픔을 겪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다"며 "긴급지원활동을 펼쳐 배고픈 스님들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보련기획 BORYEON

장엄불사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부처님오신날 도량장엄등 설치 • 유지관리


연등 자동승강장치


고정식 연등설치


천불전


인 등


위 패


법당용 연등

공단연등


아크릴한지등

부처님오신날 장엄등


사찰명인쇄 주문접수 중

전선, 전구등 공사자재


www.boryeon.com 010-5381-9355 /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549-1